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척도 개발 및 타당화*

송 보 라[†] 김 지 연 이 동 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 성격,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자기불일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를 실시한 후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Higgins(1985, 1987)의 자기불일치이론과 정승아(2004)의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예비문항을 작성한 후 전문가 집단의 평정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립하였다. 3차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18문항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N=161)에게 실시하여 요인구조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α)는 .87로 양호하였으며 총 3개의 하위요인(외모, 성격, 대인관계)이 확인되었다. 3개의 하위 요인 및 전체 척도와 여러 타당도 지표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립되었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기불일치, 초등학교 고학년, 척도 개발

* 이 논문은 2008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심리실습 수업(담당 교수: 이동귀) 과제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보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유억겸기념관 205호)
E-mail : miumiup@hanmail.net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통해 실제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혹은 보다 나은) 모습을 바란다. 하지만 실제 자기 모습과 이상적인 자기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이 여러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Higgins, 1985; Higgins, 1987).

1980년대에 제시된 Higgins의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 theory)이론은 그 이론적 뿌리를 Carl Rogers에게서 찾을 수 있다(정승아, 2004). Rogers는 이상적 자기와 지각된 자기 모습과 같은 자기 개념들이 현실에서의 자기 모습과 불일치 할 때 정신병리가 유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Rogers, 1961). 이를 토대로 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에서는 인지적 차원으로의 자기 영역(Domains of the self)과 자기에 대한 관점(Standpoints on the self) 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자기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기의 영역으로는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속성을 반영하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 도덕적인 책임의 식으로 자신이 소유해야만 하는 속성을 지칭하는 의무적 자기(Ought self)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자기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 두 가지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세 가지 영역과 자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교차시키면 6가지 자가지위표상(Self-State Representation)이 존재하게 된다. 즉, 실제적 자기/ 자신의 관점, 실제적 자기/ 타인

의 관점, 이상적 자기/ 자기의 관점, 이상적 자기/ 타인의 관점, 의무적 자기/ 자신의 관점, 실제적 자기/ 타인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실제적 자기/ 자신의 관점, 실제적 자기/ 타인의 관점은 자기개념(Self-concept)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가지위표상은 자신을 인도하거나 안내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자기불일치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동기는 자기개념과 자기기준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발된다고 주장하는데, 즉 자기 개념과 자기 기준의 거리가 크고 양자 간의 균형이 안 맞을수록, 우울 및 불안과 같은 특정한 부정적 정서를 초래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형별로 자기 불일치가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도 다름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는 긍정적 결과가 부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실패, 불만족감, 연민, 슬픔, 비참함, 낙심 등 우울과 관련된 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데, Higgins(1987)는 이에 대해 우울과 관련된 정서들이 자기의 고유한 소망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우울과 관련되는지를 검증한 국내의 연구에서(최정원, 이영호, 1998) 우울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자기불일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높은 불일치가 우울과 관련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죄책감, 걱정, 놀람, 두려움, 위협감, 긴장, 불안 등 초조와 관련된 정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가 불안 및 우울을 매개로 부적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 실제적 자기와 의

무적 자기와의 차이가 초초와 같은 정서를 나타내는 불안을 유발하여 부적자아상 정립에 기여한다고 나타났다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 이혁준, 2008).

이는 중요한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데 실패하였다는 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대인불안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Higgins, 1985; Higgins, 1987). 따라서 자기 불일치 이론은 정서적 불편에 대한 취약성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하며 인지적 구성과 감정적 요소간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불편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최정원, 이영호, 1998).

자기불일치의 정도와 정신건강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볼 때 개인의 자기불일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중요한데, 특히 자아 개념에 대한 고민과 확립을 주요 발달 과제로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즉, 자아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은 성인기의 건강한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을 예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실제로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아상이 심리적 적응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비행과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 2008; Higgins, 1987; Oglivie, 1987). 따라서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기 개념들 간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서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적응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한 자기불일치 측정 도구가 존재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헌을 살펴본 결과

현재 자기불일치와 관련된 측정 도구 몇 가지가 개발,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Higgins의 자기질문지로서 앞서 언급한대로 자기를 실제자기,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의 세 가지 영역과 자신이 보는 관점과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보는 관점의 두 가지 관점을 조합해 6가지 자기 표상(실제/자신, 실제/타인, 이상/자신, 이상/타인, 의무/자신, 의무/타인)의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Tangney, Niedenthal, Covert & Barlow, 1998) 불일치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너무 전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현실 장면(예, 학교)에서 바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정교영(1998)은 자기 개념 및 자기불일치 평정에 관해서 Q-sort 카드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제작했는데, Q-sort 카드는 자기를 기술하는 33개의 단어가 적혀 있고 33장의 카드 중 긍정적 자기 기술 형용사가 적힌 카드(예, 성실하다, 정직하다, 마음이 넓다 등) 18장과 부정적 자기기술 형용사가 적힌 카드(예, 급하다, 우울하다, 우유부단하다 등) 15장으로 구성된다. 이 카드들은 현재 실제 자기 모습과 이상적 자기 모습,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서 본 모습을 분류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교영(1998)도 언급한 것처럼 긍정 형용사와 부정 형용사의 단어 숫자가 동일하지 않아서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안되었다.

정승아(2004)의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MSDSDS)는 위의 두 척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현실적/이

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는데 처음에 5요인(대인관계 및 성격, 가족 및 부모관계, 외모, 사회적 지위, 능력)으로 구성된 21문항 이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¹⁾, 이에 추후 개정 과정을 거쳐서 ‘대인관계’ 요인에 속하는 5문항, ‘외모’ 요인에 속하는 3문항, ‘가족관계’에 요인에 속하는 3문항이 포함된 11문항만을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가 심리측정적인 측면에서 양호하지만 몇 가지의 한계점 역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항이 ‘자신의 이상적인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라’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자기 불일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전체 문항에 걸쳐 각 요인별로 각자 다른 대상을 떠올려야 한다는 점은 자칫 이 척도의 오염변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모를 평가하는 대상과 능력 요인을 평가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다 보면, 앞서 질문에 답한 대상과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대상과 자기와의 불일치 척도 비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개발된 자기불일치 척도들의 한계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실용도가 높은 자기불일치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불일치 측정 도구의 개발

함과 아울러 청소년의 학교 적응장면에서 이 도구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불일치가 일어나는 특정한 영역을 학교 장면으로 정한 후 이 영역에서의 자기불일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학교 장면은 청소년들이 자기불일치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학교에서의 경험하는 자기불일치는 부적응적인 학생들, 좀 더 나아가서는 왕따, 은둔형 외톨이들과 같은 소외된 학생들의 자기 개념과 이에 따른 심리, 대인관계 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불일치 척도를 개발할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사춘기를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 시점에서의 자기불일치 경험이 이후 발달단계의 심리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시기에 예방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불일치 척도의 예비문항은 우선 권석만(1996)이 ‘다면적 자기개념 검사’에서 제안한 다양한 영역들, 즉 외모 및 신체적 매력, 건강 및 운동능력, 가족의 재산, 성격 및 성격적 매력,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지적 능력, 지식수준, 학업수준, 인생관과 가치관의 확립 정도,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신분의 영역들과 정승아(2004)가 제안한 자기개념 평가 영역(외모, 능력, 학벌, 대인관계,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가족관계 영역)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영역들, 예를 들어 능력, 학벌,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외하였

1) 이에 대한 이유로 정승아(2004)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 요인 등과 같이 개념적으로는 한 요인에 포함될 수 있을지라도, 요인공간상에서 나머지 요인과는 이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고, 자기 평가와 관련된 한 개인의 내적인 부분에 보다 집중하려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관계 영역을 또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불일치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크게 외모, 성격, 그리고 대인관계와 같이 3가지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영역인 외모 차원은 정승아(2004)의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산출된 세 가지 하위 영역인 외모, 얼굴, 체형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성격영역에 관한 불일치 문항들은 성격의 5요인 모형('Big Five')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최근에 대부분의 성격심리학자들은 성격을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요인(신경증성향(neuroticism: N), 외향성(extraversion: A),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ess to experience: O), 우호성(agreeableness: A), 성실성(conscientiousness: C))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고 이러한 5요인이 성격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유용한 체계로 사용되고 있으며(Digman, 1990) 각 요인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McCrae & Costa, 1987). 첫 번째 요인인 신경증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요인인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이고 세 번째 요인인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네 번째 요인인 우호성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이며 다섯 번째 요인인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유태용, 박태구,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적인 자기 경험에 초점을 두고 성격 요인의 문항을 구성하고자, 다섯 가지 성격 요인 중 대인관계 또는 외부자극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제외하고, 개방성과 성실성 요인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대인관계 영역으로서, 사춘기 시기의 아동들은 학교와 그 밖의 활동으로 인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 줄이면서 대인관계 역시 부모에서 친구로 옮겨가면서 대인관계의 대상이 넓어져 자아성장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인관계 양상이 매우 중요하다(김경희, 1992). 뿐만 아니라,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Hartup, 1989)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아동은 적응에 있어서 장기적인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Parker, Asher, 1987). 따라서 아동기의 대인관계 모습은 매우 중요하며, 아동의 대인관계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에 대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Schutz(1958)의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나명훈, 2006). Schutz(1958)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 욕구인 소속욕구, 통제욕구, 애정욕구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 세 가지 기본욕구를 통해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인관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제욕구, 소속욕구, 애정욕구가 아동 자신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불일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문항개발과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를 구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문항 검토를 위한 예비 설문에서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했다. 둘째, 본 설문에서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실히 응답하지 않거나 문항을 빠뜨린 1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61명(남 75명; 여 86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 척도(SDIS)

이 척도는 초기청소년의 자기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실제 자신의 모습 수준과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 수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매우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현실척도의 점수와 이상척도의 점수 간 차이가 클수록 자기불일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현실척도의 경우 전체=.87, 요인 1(외모)=.86, 요인 2(성격)=.69, 요인 3(대인관계)=.76이었고, 이상척도의 경우 전체=.85, 요인 1(외모)=.86, 요인2(성격)=.80, 요인 3(대인관계)=.66이었다.

타당도 지표

아동용 자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어주경

(1998)이 아동용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존감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개인의 가치, 자신감, 만족도 및 자신에 대한 비하로 총 10 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정말 아니다’ 1점, ‘아닌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정말 그렇다’ 4점으로 표기한다. 역채점을 해야 하는 부정적인 문항은 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아동용 학교적응 검사. 이 척도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유윤희(1994)가 수정한 것이다. 척도의 하위 요인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이며 각 요인당 8문항으로 총 32문항이다. 5점 평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아주 그렇다)이며 8개의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잘 적응하는 학생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전체=.86, 요인 1=.70, 요인 2=.75, 요인 3=.78, 요인 4=.68이다.

아동용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Bandura의 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황성우(2007)의 아동용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신감이며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평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이며 8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으로 본다. 본 연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요인 1=.89, 요인 2= .87, 요인 3=.79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우선 선행연구와 기존도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1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자기불일치 이론에 바탕을 둔 자기불일치 척도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기존 도구들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본 연구의 척도개발 과정에서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개발된 자기 불일치 척도들 중에 가장 현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도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계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 정승아(2004)의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MDSDS)를 토대로 자기불일치 영역을 외모, 성격, 대인관계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MDSDS가 실제 학교상황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장면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자기불일치의 영역과 대상을 학교장면과 초기 청소년 학생들로 척도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세 영역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고 대상의 수준에 맞게 제작된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 척도의 40문항을 1차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1차 문항들을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항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보완하여 2차 문항을 작성하였다.

2차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가 1명과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가 1명, 그리고 임상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자기불일치 척도를 개발한 전문가 1명을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각 하

위요인에 대한 구성개념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타당한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부탁하였다. 더불어 자기불일치 척도 개발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는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수렴 및 변별 척도 선정에 관련한 자문도 구하였다. 이러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2차 문항을 또 한 번 수정 보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 척도’ 3차 예비문항 18문항을 제작하였다.

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3차 예비문항 18문항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한 학급씩 조사를 실시했으며, 실시 전에 방법 및 절차, 유의점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3차 예비 문항 18문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타당도 검증에 필요한 도구로 어주경(1998)의 아동용 자존감 척도, 유윤희(1994)의 아동용 학교적응 검사 척도, 황성우(2007)의 아동용 자기효능감 척도를 포함시켜 검사하였다. 3차 예비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최종 추출된 11문항이 이 도구들과 타당도 검증을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11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 계수)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 검증 도구들과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1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본 조사의 연구대상자인 161명의 자료에 대해 주축분석(principal axes factoring)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SDIS ‘이상’ 점수는 초기 고유치가 1이상으로 나온 요인이 다섯 개로 나타났고 SDIS ‘현실’ 점수도 요인이 다섯 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이론적 배경과 스크리 도표, 그리고 해석 가능성을 참조하였을 때 다섯 개 요인 대신 세 개의 요인이 제안되었다. 전체 변산에 대한 이 세 요인의 총 설명력은 이상 점수의 경우 43.30%였다.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SDIS의 18개의 예비문항을 3요인 구조를 기준으로 주요인의 부하량이 .40 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의 부하량은 .25 이하인 문항을 추출했다. 단, 성격요인으로 분류된 “세상에는 흥미롭고 궁금한 것이 많다”문항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30으로 나왔지만 요인간 부하량 차이가 .15이상으로 한 요인에 분명하게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 예외적으로 채택하여 성격요인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SDIS 11문항에 대해 프로맥스 회전을 실시하여 최종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표준형성의 적절성 척도인 Kaiser-Meyer-Olkin이 현실 척도에서 .890, 이상 척도에서 .850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는 $p < .001$ 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고유치는 현실척도에서 4.977, 1.111, 1.099, 이상척도에서 4.824, 1.532, 1.116으로 나타났다. 설명변량은 현실척도에서 45.249, 10.099, 9.995, 이상척도에서 43.855, 13.845, 10.148로 나타났고, 전체 변산에 대한 설명력은 현실 척도에서

65.343%, 이상 척도에서 67.848%로 제시되었다. 표 1에 SDIS 최종 11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최종 선택된 SDIS 11문항은 외모, 성격, 대인관계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 4, 4,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위요인들은 모두 자기불일치의 영역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 요인은 전체와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각 요인들 간에는 그 보다는 낮지만 적정수준의 상관을 보여야만 각 요인들이 모두 자기불일치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낮은 상관은 관련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고 너무 높은 상관을 보이면 같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해서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각 하위요인의 불일치 점수와 자기불일치척도의 전체 불일치 점수와의 상관을 보면, 전체 불일치 점수는 외모($r = .79, p < .01$), 성격($r = .77, p < .01$), 대인관계($r = .66, p < .01$)의 불일치 점수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밖에 각 요인 간에도 적절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 = .49, p < .01$; $r = .31, p < .01$; $r = .41, p < .01$) 척도가 각 영역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및 타당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자기불일치 척도’(SDIS)의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

표 1. 자기불일치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자기불일치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분	M		SD		문항 전체상관
						점수	차이	점수	차이	
외모(4문항)										
내 외모 중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 할만 한 부분이 있다	현실	.61	.08	.15	.58	3.94		1.84		.56
	이상	.75	-.12	.13	.59	5.14	1.75	1.86	1.63	
내 체형은 정상적이다	현실	.59	.09	.04	.45	4.43		1.84		.44
	이상	.69	.07	-.13	.44	5.86	1.69	1.50	1.64	
내 외모는 매력적이다	현실	.90	-.13	.06	.75	3.65		1.68		.60
	이상	.82	-.05	.03	.66	5.30	1.89	1.73	1.55	
내 외모는 전체적으로 호감형이다	현실	.93	.01	-.08	.79	3.57		1.72		.62
	이상	.91	.04	-.06	.80	5.34	1.97	1.66	1.67	
성격(4문항)										
세상에는 흥미롭고 궁금한 것이 많다	현실	-.09	.30	.11	.10	5.84		1.45		.34
	이상	-.08	.56	-.11	.22	5.78	0.88	1.57	1.32	
나는 주어진 일을 꼼꼼히 처리한다	현실	-.00	.72	.01	.53	4.37		1.62		.40
	이상	.01	.68	.08	.55	5.85	1.72	1.44	1.56	
나는 계획과 실천이 분명하다	현실	-.01	.80	.02	.65	3.23		1.62		.47
	이상	-.02	.96	-.07	.83	5.62	2.58	1.65	1.69	
나는 창의적이다	현실	.24	.50	-.15	.39	4.16		1.77		.50
	이상	.08	.77	-.06	.62	5.72	1.74	1.59	1.47	
대인관계(3문항)										
특별히 더 친한 친구집단이 있다	현실	.05	-.11	.69	.44	5.06		2.02		.41
	이상	-.05	-.23	.75	.40	5.49	0.89	1.97	1.40	
친구들은 내 고민을 잘 들어 준다	현실	-.23	.08	.81	.69	4.58		2.00		.41
	이상	.08	.22	.47	.53	5.59	1.24	1.64	1.59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이 정해져있다.	현실	.09	.17	.54	.51	4.12		1.59		.43
	이상	.03	.20	.55	.49	5.34	0.91	1.67	1.19	
고유치(Eigenvalue)	현실	4.98	1.11	1.10						
	이상	4.82	1.53	1.12						
설명변량(%)	현실	45.25	10.10	10.00						
	이상	43.86	13.85	10.15						
누적변량(%)	현실	45.25	55.35	65.34						
	이상	1.12	10.15	67.85						
신뢰도(Cronbach α)	현실	.87	.69	.77						
	이상	.86	.80	.66						

삭제된 7문항: 내 얼굴은 잘생겼다(예쁘다)/ 나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적당하다/ 나는 쓸 데 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나는 종종 괜히 불안하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들이 내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내 영향력은 크다. 공통분 = communalities.

표 2. SDIS의 전체와 각 요인 및 요인 간 불일치 점수의 상관관계

	SDIS	외모	성격
1요인: 외모	.79**		
2요인: 성격	.77**	.49**	
3요인: 대인	.66**	.31**	.41**

** $p < .01$.

표 3. SDIS와 자존감,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자기불일치: 외모	자기불일치: 성격	자기불일치: 대인관계	자기불일치: 전체
자존감	-.37**	-.28**	-.363**	-.42**
학교적응	-.26**	-.27**	-.32**	-.36**
자기효능감	-.19*	-.36**	-.26**	-.33**

** $p < .01$, * $p < .05$

계수는 .776이고 3개의 하위 척도의 각각에서 현실의 경우, .866, .692, .760, 이상의 경우, .862, .804, .663으로 나타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비교적 동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SDIS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자기 불일치 척도(SDIS) 11문항, 자존감척도(SE) 10 문항(어주경, 1998), 학교 적응도척도(SC) 32문항(유윤희, 1994), 자기효능감척도(SF) 19문항(황성우, 2007)을 검사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자기불일치척도는 자존감 척도와 $r = -.42$, 학교적응도 척도와 $r = -.36$, 그리고 자기효능감 척도와는 $r = -.33$ 등 모두 유의도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자기 불일치 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척도의 세 하위요인들이 각각 자존감, 학교적응도, 자기효능감과 나타내

는 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요인(외모 요인), 2요인(성격 요인), 3요인(대인관계 요인)이 모두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불일치의 영역을 측정하는 세 요인이

전체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각 요인들 간에도 적정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안정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문항 전체와 하위 척도 문항간의 내적합치도도 적절하게 나타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동질적임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인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격요인’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을 측정하는 “세상에는 흥미롭고 궁금한 것이 많다.” 문항의 패턴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이는 지적 호기심이란 특성 자체가 이 시기 아동들의 전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성격 요인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Piaget, 1960)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격에 대한 개념은 있으나 현실에서의 구분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정승아(2004)의 자기불일치 척도에서도 성격과 대인관계 요인은 한 요인으로 묶여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이 뒷받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성격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이론적 배경이 성격 5요인 이론(Costa&McCrae, 1980)이었고, 1차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외향성’(Extraversion)과 ‘친화성’(Agreeableness)의 개념은 대인관계의 개념과 맞물려 포함시키지 않았고, ‘신경증’(Neuroticism)의 개념은 연구대상인 초등학교의 수준에서 지각하기 모호하다고 여겨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의 구성 개념으로서 ‘개방성’(openness)과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성격요인의 불일치가 자존감,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개방성과 성실성의 특성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적응이나 자신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자기불일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모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외모 요인의 문항은 얼굴, 체형, 전반적 외모에 관련하여 제작했던 1차 문항들 중 장점, 체형, 매력, 호감의 개념에 대한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를 유목화하면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장점이나 체형은 ‘가시적인 외모’의 범주에 묶이며, 매력이나 호감도는 ‘비가시적인 외모’의 범주에 묶인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외모 측면에서 가장 큰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존감, 학교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요인’에서는 Schutz(1958)의 제안에 따라 제작한 1차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지만 이론에서 설명하는 각 범주의 개념은 모두 포함되었다. 즉, 인간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욕구인,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애정욕구’,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속하려는 ‘소속욕구’,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제욕구’(김옥희, 2004)가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대인관계 측면의 불일치를 두드러지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외모와 성격의 불일치만큼이나 개인의 자존감, 학교적응, 자기효능감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을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과

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수의 표본을 바탕으로 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불일치 척도는 주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측정도구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자기불일치 관련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학교 장면에서의 활용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불일치 척도’는 세 하위요인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 구성이 초등학생의 언어적 능력에 적합한 수준이면서도, 초등학생의 자기불일치를 65%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척도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이 민감하게 인지하는 외모, 성격, 대인관계에서의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것이며, 이러한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정서 및 적응 문제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척도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외모, 성격, 대인관계 중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불일치를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자기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정서 및 관계적 문제의 완화를 통해 그들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장면의 문제 현상들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 (1992).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남재 (2000). 대인관계와 사회적 자기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73-483.
- 김남재 (2001). 대인불안과 우울에서의 자기불일치. 심리과학, 10(1), 56-57
- 권석만(1996). 자기 인지의 구조와 정보처리과정에 있어서 우울집단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 17-31.
- 나명훈 (2006). 초등학생의 체육특기 적성활동 참여와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지향성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5(2), 27-35.
- 유태용, 박태구 (1999). 신임경찰 교육장면에서 성격의 5요인 및 생활 경험과 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2(2), 129-144.
- 신민희, 강문희 (2005). 소년원 수용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불일치 및 우울 수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183-205.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신능, 서은국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의 인과적 관계.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논문집.
-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윤희 (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 (2008). 자기 불일치가 불안 및 우울을 매개로 부적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3), 183-206.

- 이영호, 최정원 (1998).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69-87.
- 이우영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의사소통 및 가족규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1991). 자기불일치 인지기제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공존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자기-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 자기 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 장정애 (1998).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학교적응,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교영, 이민규 (1998). 편집성향과 자기개념 및 자기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27-138.
- 정승아, 오경자 (2004).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471-482.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정승아 (2004).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23, 85-91.
- 최성식, 김성희 (2007). 초등학교 고학년용 조화적 대인관계척도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 20(3), 251-269.
- 최정원, 이영호 (1998).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69-87.
- 황성우 (2007).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sta, P. T., Jr., & Mcrae, R. R. (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ome issues in adulthood and old age. In P. B. Baltes & O. G. Brim, J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15.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

- and later personal development: Are low accepted school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iaget, J.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Patterson. N. J.: Little Field, Adams, 1960.
-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Mariner Books: New York.
- Schutz, W. C. (1958). *FIRO: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Rinehart & Company, Inc.
-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56-268.

원고접수일 : 2009. 10. 13.

게재결정일 : 2009. 11. 3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lf-Discrepancy Scale in Elementary High Graded Students

Bo-Ra Song

Ziyon Kim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the Self Discrepancy measure(SDIS) in the domains of appearance, characte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high grad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estimates. Based on the Higgins' (1987) self discrepancy theory and the Multi-dimensional Self Discrepancy measure of Jeong(2004), a pool of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and the content validity was established.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DIS, the scale was administered to 161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SDIS was relatively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lpha = .87$).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SDIS consists of three factors, labeled 'Appearance' 'Characte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ionships between the scale and conceptually related variables were examined to support for the estimates of convergent-discriminant validity and the results were positive as expected. This study ends with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Self-discrepancy, High grad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3 factors of self-discrepancy